

중랑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폐회

중랑구의회(의장 김근종) 제189회 정례회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8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6월 27일부터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3일부터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7월 8일부터 2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날인 7월 1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김근종 의장 회의 주재

채택의 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했다.

구청은 '구정질문' 요구사항을 빠르게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근종 의장

제1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근종 의장은 “구의원들이 구정 질문을 하는 것은 지역의 민원을 알려주고 그 민원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라며 구의원들의 구정질문 요구사항에 대해 구청의 적극적인 처리를 주문했다. 김 의장은 “지난 임시회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께 (가칭)중랑구지역발전협의회를 만들

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함께 중랑구 발전을 도모하는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구청측의 답변이 없었다”며 구청의 구정질문 처리 지연에 대한 예를 들었다.

이어, “지난 해 중랑구 갑·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CCTV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역의 현안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 구청장과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하여 구청과 소통이 안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중랑구민의 발전을 위한 일에 정당을 떠나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앞으로 구청장께서 우리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현안에 대한 예산확보와 관련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 2012 회계연도 3,684억원 규모 결산 심사 마쳐 -

중랑구의회(의장 김근종)는 제18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7월 3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개회하고 위원장에 송화영 의원, 부위원장에 이영실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의회는 지난 6월 17일 제1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여 강대호, 김규환, 송화영, 신하균, 이영실, 최성식, 황판남 의원 등 7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예결특위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산액 규모는 2012 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3,481억원, 특별회계 203억원 등 총 3,684억원이며, 결산승인은 지난 7월 10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한편, 예결특위 위원장인 송화영 의원은 “집행부가 지난 해 집행한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검사하고, 구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된 사례가 있었는지를 살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위원장



송화영 의원

부위원장



이영실 의원

위원



강대호 의원

위원



김규환 의원

위원



신하균 의원

위원



최성식 의원

위원



황판남 의원

중랑구의회에서 구청·동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정 32건, 건의 93건 등 총 125건 처리요구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랑구의회는 제18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중랑구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 주민센터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6월 18일 4개반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면목본동, 면목3·8동, 면목7동, 상봉2동, 중화1동, 묵1동, 묵2동, 망우본동 등 8개 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93건 등 총 125건이 적출되었으며, 적출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송했다.

7월 10일 제4차 본회의 상임위원회별 감사보고에서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평가를 하여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간주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요구하였으며, 공무원 신규임용자는 업무과약이 이루

어진 후에 대민업무에 배치하고,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및 조치(화재보험 등)를 철저히 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며, 각 동 주민센터의 방역장비 점검 및 방역활동을 철저히 함은 물론, 공중위생업소의 내부 공기 순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또한,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경로당 및 복지관 공사 준공후 하자보수시 하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일시적 하자복구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건물주에게 불법 건축물을 조장하는 시공사·건축사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을 요구하였으며, 보육시설(어린이집)에서 부정식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법을 준수하는 주민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불법광고물(간판)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며, 용마폭포공원이 투자비에 비해 활용도가 낮으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건의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강평을 통해 감사를 받느라 고생한 공무원들을 위로하고, “구민의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강대호 의원, 송화영 의원 조례 공동발의

-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등 2건 -



강대호 의원
(중화1동, 중화2동)



송화영 의원
(상봉1동, 신내2동)

강대호, 송화영의원은 제189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강대호 의원은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 조례안은 7월 10일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 처리 됐으며, 강대호 의원은 “위 조례가 시행되면 구민의 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구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랑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이윤재 의원(묵1동, 묵2동)

이윤재 의원은 “어린이집은 크게 국·공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나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직원인건비 상당액과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데 비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보육료 수입에만 의존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히고, “민간의 개인 자산을 대가없이 출연하게 해 국가의 책무를 대행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건전한 보육사업의 육성을 위해 민간의 투자자원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협의해 그에 걸맞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의 질을 높이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면서 “타 지자체에서는 차액금 및 인건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으니 중랑구에서도 재원을 확보하여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